

## 기도의 제단으로 돌아갈 때 - 제단을 다시 보수하라

### ● 4월 - 우리에게 다시 찾아 오신 하나님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왕상 18:30, 킹흠정)

#### 비가 그치자

으스스한 침묵이 갈멜산을 뒤덮었지만, 운명적인 날이 도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가뭄이 있기 전, 갈멜산은 나무가 우거진 푸르고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비가 충족하게 내리며 거룩한 곳, 축복이 넘치는 비옥한 곳이었습니다(엘렌 G. 화잇, 선지자와 왕, p. 144).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초록이 우거졌던 곳은 3년 반의 가뭄으로 이제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왕상 17:1; 18:1; 약 5:17). 엘렌 화잇이 그때를 묘사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불에 탄 것처럼 바짝 말랐고 맹렬한 태양열은 남은 식물마저 태워버렸다. 시냇물은 말랐고 우는 양떼와 소떼들은 고통 중에 이리저리 방황하였다. 한때 비옥했던 들판은 불타는 모래사막과 황량한 광야처럼 되었다. ... 한때 번영하던 성읍과 촌락은 비탄의 장소가 되었으며 주립과 목마름은 인간과 짐승에게 무서운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모든 공포를 수반한 기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선지자와 왕, p. 124,125)

#### 가뭄 가운데

아마도 이스라엘을 덮친 물리적인 가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목마르게 하고 믿음을 고갈시킨 영적인 가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시돈 신부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약화시켰습니다. 이 파국의 영적 배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에 관하여 엘렌 화잇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는 이스라엘 중에 신속히 퍼지는 배도를 막도록 되어 있었다” (선지자와 왕, p.119)

####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데 실패한 후,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왕상 18:36) 엘리야는 참 하나님의 부서진 제단을 다시 쌓도록 백성들을 제단 가까이 불러모았습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다시 참 예배의 제단으로 불러모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하나님을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예배의 제단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공중 예배 제단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인과 가족의 제단도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게 한 것

갈멜에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국가적인 영적 부흥의 첫 번째 행동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의 예배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쌓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두를 하나님의 임재의 불로 사로잡게 합시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 기도시간(30-45분)

###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 열왕기상 18:30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왕상 18:30, 킹흠정)

####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예수님,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한 것은 바로 성령이였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사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당신에게 우리를 이끌어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시고 전에 결코 갖지 못했던 당신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가족 단위로든지 당신과의 정기적인 시간을 소홀히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새 태도를 주사 당신과 함께 하는 정기적인 예배와 헌신의 시간을 재정립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의도적이며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을 복돋우사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임재를 통해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 그밖의 기도 제안들

**감사와 찬양:** 구체적인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

**고백:** 몇 분동안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인도:** 현재의 도전과 결정을 위해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교회:** 지역교회와 세계 교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각 구별된 기도요청을 참고).

**지역교회의 요청:** 교회 성도들, 가족,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경청과 반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찬양으로 화답하라.

### 찬양 제안

**찬미가:** 살아 계신 주의 영(229장); 맘에 평화 얻고(42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544장)

**다른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코 나는 흔들리잖네